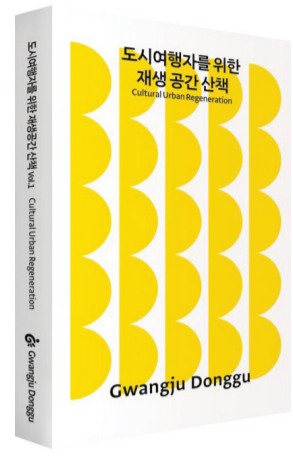


시간의 흔적을 품은 공간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참상을 장면소설로 구현한 작품이다. 작가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정지한 문장과 감수성이 투영된 수작이다. 당시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살상과 폭력을 시민들이 어떻게 견디며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광주 금남로는 '소년이 온다' 주인공들이 걸었던 길이자 죽어갔던 공간이다. 지금도 금남로 일대는 당시 상흔의 역사가 오롯이 드러워져 있다. 금남로 한 복판에 서면 아련히 들려오는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일빌딩245는 5월 그날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68년 금남로 1번지에 세워진 건물은 5·18 당시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와 전일방송이 입주해 있었다. 전일빌딩245는 번지수가 아닌 당시 총탄 자국의 개수다. (그러나 국과수 감시 결과 탄흔이 25개 추가 발견돼 흔적은 270개다)

현재 전일빌딩은 외관 형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내부는 새롭게 바뀌었다. 즉 재생공간으로 탄생한 것이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시민문화공간이, 5층부터 7층은 문화콘텐츠 공간이, 9층과 10층은 5·18기념공간이 들어서 있다. 8층과 옥상은 카페 및 휴게공간이다.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근 발간한 '도시여행자를 위한 재생 공간 산책'은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다. 동구 원도심의 재생 공간을 의미있고 생생하게 소개하는 책으로 '소년이 온다' 현장을 비롯해 ACC, 인문학당, 동명동골목길, 남광주역, 여행자의 집, 남광주시장 등을 만날 수 있다. 시간과 역사가 깃든 공간을 허물지 않고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력을 담보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전주교 사제들이 5월 당시 농성을 벌였던 광주

가톨릭센터는 5·18기록관으로 바뀌었다. 기록관은 2015년 5월 개관했으며 이에 앞서 2011년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전시실과 열람실에서는 5·18 관련 사진, 기사들의 취재수첩, 일기, 성명서 등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비치돼 있다.

동구에는 많은 문화자산이 산재해 있는데 동구 인문학당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정광민 건축사는 이곳에 대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필요를 반영한 절충 양식의 건축으로 시민들의 주택에 대한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명 '박옥수 가옥'으로 불리는 주택은 1954년 지어졌다. 양옥과 한옥이 결합된 집은 고풍미와 세련미를 발하며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잇고 있다. 주차장 부지로 철거될 운명이었지만 건축학적 가치가 인정받아 존치될 수 있었다.

리모델링한 공간은 가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도시여행자를 위한 재생 공간 산책'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발간 전일빌딩245·인문학당·동명동 등

자료들이 전시돼 있으며 새로 증축한 인문공간, 부엌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행자의 집은 광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남 교육감 관사로 활용됐던 곳이다. 리모델링을 거쳐 도시여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담장을 없애 초록마당으로 연결해 1층은 안내데스크, 관광굿즈 편집실이 들어서 있고 2층은 캠크닉(캠핑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남광주역과 남광주시장은 옛 정서가 여전히 남



광주 동구에는 유서 깊은 문화자산들이 많다. 5·18의 상흔을 간직한 전일빌딩245.



근대기에서 인문학 사당으로 재탄생한 동구인문학당(왼쪽), 남광주역 플랫폼에 있는 기관차 커뮤니티 공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세무서 옆 갤러리

북광주세무서 신축개관 기념전 '갤러리 & 409' 28일~3월 31일 강동권·박유자 등 작가 5명 참여



강동권 작 '사랑의 향기'

창작과 연계된 작가의 시선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들의 시선은 예술적 감성과 해석이 결부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따뜻하게 닿는 시선의 온도는 작품에 오롯이 투영된다.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가 열린다. 특히 50대라는 '살' 나이 작가들의 시선을 초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409' 개관과 맞물려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시 주제는 '시선'. 강동권, 박유자, 이두환, 장윤림, 조현수 5명 작가가 참여하며 북광주세무서(서장 노현탁) 신축 개관을 기념해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시 첫 날 개장식과 갤러리 개관식도 함께

펼쳐진다.)

오늘날 관점에서 '살'은 청춘도 아니고 중년도 아닌 나이이다. 젊음의 열정을 활활 불태울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는 '살'의 시기도 아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점차 숙성되어가면서 저마다 독특한 향을 발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이다. 명예관장인 박유자 작가는 23일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 '갤러리&409'에서 409는 관할 세무서마다 고유 지역별 코드번호가 있는데 북광주세무서는 409라는 번호를 부여받은 것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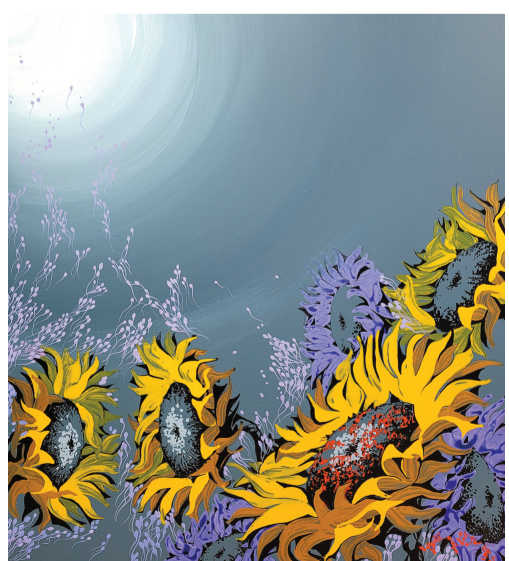
강동권 작가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 장미를 통해 사랑의 빛을 향기롭게 전하고 싶다는 의도를 작품에 담았다.

전시를 기획한 박유자 작가는 사랑과 부와 희망을 상징하며 천 개의 씨앗을 품은 해바라기를 매개로 밝은 에너지가 퍼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구원했다.

이두환 작가는 나 자신과 타인의 이해는 결국 타자를 통한 나에 대한 사유로 귀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재와 분재를 사용한 장윤림 작가는 달항아리가 환기하는 텅 빈의 여백과 호흡의 흔적을 화폭에 담았으며, 생명과 상생의 의미에 집중한 조현수 작가는 고매의 아름다움과 기운생동하는 매혹의 기운을 미적으로 표현했다.

노현탁 세무서장은 "갤러리&409가 내방하신 납세자분들과 직원들의 힐링 공간을 넘어 지역 작가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유자 작 '사랑합니다-희망'

사랑·죽음...상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첫 번째 키스' 광주극장 27일 개봉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섬세한 영화적 시선으로 타자성을 사유하는 두 편의 예술영화가 스크린에 걸린다. 사별한 '엄마'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남편'을 다룬 작품들은 사랑과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

광주극장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와 '첫 번째 키스'를 오는 27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제76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꼽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17년간 딸 로자의 전부가 되어준 싱글 데디 에티엔의 이야기를 그린다.

에티엔은 미술을 사랑하는 딸을 응원하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느 날, TV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한 뒤 두 사람의 마음

에는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사라진 '엄마'를 기억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예고편 속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멀리 떠나간다"는 캐치는 주제를 함의한다.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의 배우인 페르즈 비스카이트가 주연을 맡았으며 세자르상에 노미네이트 된 셀레스트 브룬켈이 딸 역을 맡는다.

아울러 츠카하라 이우코 작 '첫 번째 키스'는 일본 특유의 감성으로 펼쳐내는 멜로-로맨스 작품으로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이혼 위기의 캔나(마츠 타카코 분)는 남편 카케루(마츠무라 호쿠토)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고 혼자가 된다. 슬픔을 느끼기도 잠시, 그녀는 업무로 인해 늦은 시간 급한 연락을 받고 출근하던 중 '기묘한 터널'로 향한다. 그곳에서 캔나는 15년 전 처음 남편을 만났던 때로 시간 회귀를 경험하는데...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 하루'를 그리지만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는 남녀의 풋풋함을 아름답게 그린다. 영화 '괴물'을 집필했던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으며 주역 배우들은 '스즈메의 문단속' 등 흥행작에 출연한 바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그린 두 편의 작품은 저마다 전개 방식은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모티브를 공유한다"며 "누군가의 부재 속에서 포착되는 사랑의 '진'이 관객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성인 1만 원, 디트릭스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첫 번째 키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공연' 작품 모집

3월 5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전통예술 분야 활성화 및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올 해 선보일 '토요 상설공연' 참가작품을 모집한다. 오는 3월 5일(오후 6시)까지 접수.

이번 공모 장르는 '전통연희', '무용', '국악창작' 등 전통예술에 한정한다. 선정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며 개인은 '판소리', '산조' 각 분야 별 5인 총 10인, 단체는 '국악창작 무대', '전통연희' 또는 '무용' 단체 등 총 12팀이다. 선정된 개인에게는 출연료 100만 원, 단체에게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전통예술의 전승과 계승을 위한 전문지식과 공연 역량을 갖춘 전문 단체(개인)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작년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공연'에 참여한 단체(개인)이거나 올해 광주문화재단 창작 지원사업(통합공모)에 2건 이상 선정된 단체(개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토요 상설공연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 및 너털마당에서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판소리·산조(5회), 국악 창작(6회), 연희·무용(6회) 총 17회와 광주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단체)를 초청한 기획공연 7회를 펼치게 된다.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이메일 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1학기 강좌 수강생 모집

선교무용·웰빙댄스·힐링요가 등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이 1학기 정규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 과목은 선교무용, 웰빙댄스, 요가·오감만족 힐링요가이며 강의는 외부 교육장에서 펼쳐진다.

먼저 선교무용(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은 기도문과 성경 말씀을 우리 국악 굿거리, 자진모리장단 음악에 맞춰 한국무용 동작으로 표현한다. 하느님 말씀을 아름답게 표현해 영육간의 건강을 찾고 나아가 봉사 및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지나 강사가 서구 유럽춤 연구소 광주지부에서 진행한다.

웰빙댄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는 포크댄스, 라인댄스를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웃과 친교를 나누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강좌다. 박찬원 강사 등이 외부교육장(서구댄스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요가·오감만족 힐링요가(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는 운동이러기보다 우리 몸이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힐링요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김현석, 나연이가 강사로 나서며 장소는 서구 동지요가.

오는 26일 수강접수 마감이며 온라인, 전화 접수 가능(각 과정별 수강료 있음).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은 광주·전남의 가톨릭 신앙교육의 중심이며, 시민들의 평생학습의 장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배움을 통해 꿈과 가능성을 실현하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